

이곳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자료는

<http://org.catholic.or.kr/eduseoul> 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요 | 조희영 마리아

1-2학년

빛과 소금이 되어요 | 김두심 엘리사벳

3-4학년

미사 | 함정민 나탈리아

5-6학년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 이윤희 사비나

중등부

귀 기울여 봐요 | 노경애 블란디나

고등부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 조현민 도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요

조희영 마리아 | 가톨릭 디다케 교안 연구원

학습목표

우리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이가 된다.

준비물 : 식사 후 기도문, 도화지, 크레파스

신작 기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선한 생각을 하며 착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재미있는 게임으로 교리를 시작할까요? 자, 코에 검지를 대고 “코코코”를 해 보겠습니다. “코코코코” 하다가 선생님이 “입” 하면 입을 짚는 거예요. (속도를 조절해 가며 입, 머리, 귀 등 다양하게 부른다.) 이제, 옆 친구와 짝을 짝지어 보세요. 이번에는 친구의 코에 내 검지를 대고 코코코를 하다가 선생님이 부르는 곳을 짚어 보세요. (코, 입, 머리, 귀, 배꼽 등)

※틀린 친구들은 벌칙으로 교리 시간 후 교실 정리를 해도 좋겠다.

(교사는 유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 친구들,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세요? 우리는 어떤 분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나요?(아버지나 엄마의 아빠, 엄마예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신 친구들도 있네요. 왜 안 계신가요?(시골에 사셔요, 친척집에 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영수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안 계신 거로군요.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죽은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요, 피가 많이 나면 죽어요, 차 사고로 죽는 걸 TV에서 봤어요, 전쟁에서 군인들이 죽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아파서 죽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 서로 볼 수 있고 이야기도 하고 성당도 함께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엔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어린아이일 때 죽는 사람들도 있고 젊은 청년일 때 사고나 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오래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옛날에는 하느님을 믿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고 무서워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것이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영수가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로 가요. 사람이 죽으면 하느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지요.

친구들, 성당에 올 때나 멋진 파티에 초대받을 때,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준비를 하나요? 선물도 준비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하지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살아 있을 때 준비를 해요. 미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런 준비를 다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착한 일도 할 수가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살아 있는 사람들이 대신 기도해 주어야 해요.

작업

(도화지와 크레파스, 사인펜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한다.)

오늘 친구들과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어요. 친구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 표현해 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요? 지옥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완성된 그림은 유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린 것인지 발표해 보도록 한다.)

마침기도

예수님! 저희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이 없거나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니 그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유아들의 도덕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옳고 그름을 구분 짓게 하기 위하여 천국과 지옥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 들어 보았지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요? (유아들의 생각을 듣는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며, 또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유아들의 생각을 듣는다.)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살아 있을 때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지만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느님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지 못한 분들도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해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중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빌어드리는 내용이 들어 있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식사 후 기도예요. 우리 같이 한 번 해 볼까요?

식사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러한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도 돌아가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기도 대신 친구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성당에서는 11월을 위령성월이라고 정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교리를 통해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기로 해요.